

vol.02

2020. 02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0. 2. 14 편집&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 | | |
|-------------|----|
| 1. 국내 항만 동향 | 02 |
| 2. 품목별 동향 | 09 |

주요 항만 동향



- 부산항, 원활한 급유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해 부산 남외항, 벙커링 정박지 신규 운영
- 인천항, 한·중 카페리 여객 100만 명 돌파
- 울산항, IMO2020 대비 친환경 설비 구축 사업 시행
- 평택·당진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 포항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

주요 품목 동향



- 양곡, USDA 2019/20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발표
- 모래, 서해EEZ 모래채취 허가 지연, 업체 경영난 가중
- 석탄,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을 통한 석탄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 적용
- 철재, 탄소배출권 톤 당 4만 원 돌파, 철강업계 어려움 가중
- 자동차, '19년 중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 중고차 수요 증가로 중고차 수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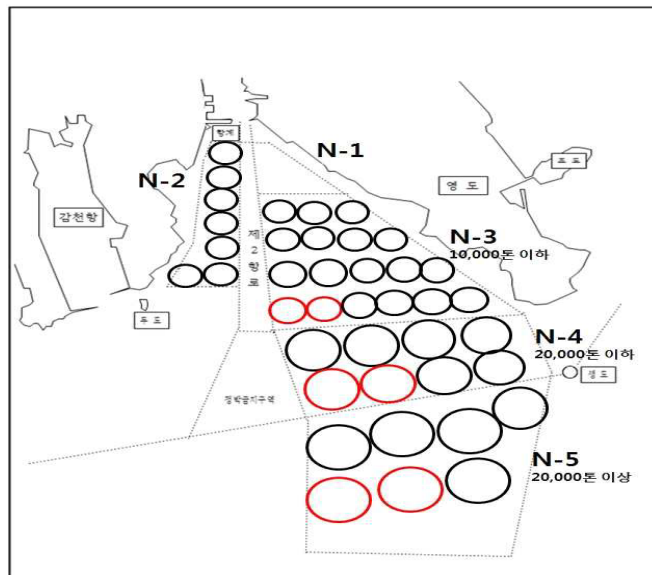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원활한 급유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해 부산 남외항, 벙커링 정박지 신규 운영¹⁾

- ☀ 최근 부산항의 정박지 부족(최대 대기선박 30여 척)으로 선박들은 정박지 밖에서 3~4일 대기해야 급유나 선용품 공급이 가능하였음
- 이에 선박들이 부산항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민원까지 발생하고 공간 부족으로 항로 인근에 무질서하게 정박한 선박들에 의한 해상사고발생 위험 또한 높아졌음
- 그동안 부산항에서는 선박의 정박 목적이 단순 급유 및 선용품 공급이더라도 신청순대로 항계 밖에서 대기해야했기 때문에 단기간 정박이 목적인 선사들의 개선요구가 많았음
- ☀ 이에 따라 부산 남외항에 급유 또는 선용품 선적을 위해 단기간 기항하는 선박들을 위한 벙커링 정박지가 운영됨
- 부산항만공사(BPA)는 남외항 N-3, N-4, N-5 정박지에 각각 2선석씩 6곳을 급유나 선용품 선적 등의 목적으로 기항하는 선박들을 위해 제공키로 함
- 정박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시간을 척당 6~10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선사들은 추후 정박지 등 부산항 이용에 불이익을 주기로 함
- ☀ 신규 벙커링 정박지 운영은 부산항의 정박지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항만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부산 남외항 신규 벙커링 정박지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0.01.07.)

1) 부산항만공사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5032&mcode=MN1387>, (2020.01.07. 검색)

2) 인천항

① 한·중 카페리 여객 100만 명 돌파²⁾

☞ 인천항 한·중 카페리 노선 여객수가 약 8년 만에 연간 100만 명 수준을 돌파함

- '19년 11월 19일 기준 누적 여객수는 약 100만 3천 명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11년 104만 3천 명 기록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함
- 항로별로는 인천-스다오 18만 7천 명, 인천-렌원강 13만 7천 명, 인천-웨이하이 13만 명, 인천-단둥 11만 1천 명, 인천-톈진 9만 7천 명, 인천-칭다오 8만 7천 명, 인천-옌타이 7만 9천 명, 인천-다롄 7만 1천 명, 인천-잉커우 4만 3천 명, 인천-친황다오 1만 1천 명 순을 기록함

②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예정³⁾

☞ '20년 9월 이후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함
- 지정 대상은 인천항 및 경인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및 하동항, 부산항, 울산항 등임
- 향후 개별 선사 차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특별법의 본격 적용 대상은 1차적으로 '20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정박 혹은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 2차적으로는 '22년 1월 이후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예정

2)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19.12.23.)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8313&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2020.01.06. 검색\)](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8313&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2020.01.06.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 '19년 총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⁴⁾

☞ '19년 여수·광양항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억 1,100만 톤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무역항 중 물동량 증가율 1위 기록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9년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3억 1,100만 톤으로 전년 3억 300만 톤 대비 2.6%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갱신함
- 특히 수출입물동량은 2억 3,000만 톤으로 국내 1위 수출입 관문항의 자리를 유지함
- 하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238만 TEU로 전년 대비 1.3% 감소함
- YGPA에서는 원양 서비스 부족, 배후산업여건 취약 등에 따른 물동량 창출 한계 등으로 선사들의 여수·광양항 기항 서비스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 YGPA 관계자는 배후지 확충을 통한 고정 물량 창출 및 항만생산성 제고 등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20년 3억 2,000만 톤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힘

4)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633&category=\(2020.01.23.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633&category=(2020.01.23. 검색))

② 광양항, 항만내 도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예정⁵⁾

- ☞ 여수항만공사는 지반탐사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항만내 공동 및 싱크홀 점검을 시행함
- 여수항만공사(YGPA)에 따르면 '19년 10월 지반탐사 신기술(GPR·차량탐재형 지표투과레이더) 보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월드컵마린센터~황금물류센터 구간에 대한 공동 및 싱크홀 탐사를 시행함
- GPR은 3차원으로 탐사가 가능해 정확한 공동 및 싱크홀의 존재, 발생위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기술이며 YGPA의 보도자료(19.12.30)에 따르면 금번 탐사 지역에서는 공동 및 싱크홀이 발견되지 않았음
- 항만공사는 '20년 항만대로 잔여 구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데이터, 탐사 데이터를 활용한 임항도로의 빅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항도로 보수공사, 충격완충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항만도로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또한 '22년 시가반의 지능형 광양항 임항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 위협 요인 사전예방 등 안전한 임항도로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619&category=\(2020.01.23.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619&category=(2020.01.23. 검색))

4) 울산항

① 11월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한 1,642만 톤 처리⁶⁾

-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석유제품 마진율 하락으로 액체화물 물동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환적 물량 증가로 전체 일반화물 물동량 소폭 상승함
- 전체 물동량 중 79.2%를 차지한 액체화물은 1,300만톤이 처리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함
- 일반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342만 톤 처리하였는데 차량 및 부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함
- 컨테이너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39,416TEU 처리함

② 울산항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제도 개정⁷⁾

- ☞ 기존 울산항 입출항 탱커선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친환경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 지원 제도로 전격 개편
- IMO 2020 시행에 따라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입출항 지원을 통해 항만대기질 개선에 동참할 목적으로 제도 개편
- 주요 내용으로 기존 지급대상인 액체화물 수송선을 전체 화물수송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기준을 저유황유 급유선박과 LNG 선박으로 변경
- 항만공사는 이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더불어 종합LNG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dataId=9749, (2019.1.6 검색)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000000&dataId=9735, (2019.1.6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30년까지 24기 설치⁸⁾

- ☀ 평택·당진항에 '20년까지 총 6기의 AMP가 도입될 전망이며, '30년까지 총 24기를 설치될 예정임
- 대형 선박이 정박 중일 때, 선박의 각종 시스템 가동을 위해 벙커C유(혹은 경유) 등을 사용하면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함
- AMP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여 정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임
- ☀ 총 24기의 AMP가 설치될 경우, 평택·당진항 정박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8.9%가 감축될 것으로 추산됨
- '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기준을 토대로 추정해 볼 경우, 전체 배출량(PM2.5 기준) 1,071톤의 38.9%인 417톤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평택시 등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
- 컨테이너 크레인 및 트래커의 연료 전환, 방진창고 건설, LEZ(Low Emission Zone) 지정, 공회전 단속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임

8) 평택시청 보도자료,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07780&ptldx=90>, (2020.1.16. 검색)

6) 대산항

① 서산시, 내년 정부예산 확보 통한 항만 등 SOC 사업 확충 예정⁹⁾

- ☀ 대산항 다목적부두 및 관리부두 건설, 어촌뉴딜,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 확보
- '작년 대비 294억원 증가된 예산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 기대
- '대산항 다목적부두 및 관리부두 건설에 210억, 구도항 및 별말항 어촌 뉴딜 사업에 11억,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에 약 3억원 예산 확보

9) 서산시청 보도자료, <http://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26958>, (2020.1.6. 검색)

7) 포항항

①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¹⁰⁾

- ☀ 시설물 검증 및 시운전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포항영일만항과 포항역을 잇는 인입철도가 개통함
- '인입철도는 포항역~영일만항(11.3km)을 잇는 단선철도로 지난 '13년 11월부터 총 1,696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함
- ☀ 인입철도 개통으로 철도를 통한 항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배기가스 저감 및 유류비 절감이 기대됨
- '철도수송장 면적은 3만 4천㎡이며 대기 선로 4개, 전차대 1기를 운용 예정

10) 포항시청 보도자료,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DF8QEB8JTJGJmJzJTGBmV3cyUyRjU4OSUyRjQyNzg4NyUyRmFydGNSVmllldy5kbyUzRnBhZ2UIM0QxJTJ2c3JjaENvbHVtbiUzRHNaQ24IMjZzcmNoV3JkJTNEJUVDJTk4JTgxJUVDJTIEJUJDJUVUJUE3JTthdJUVUJUE3JTJ2YmJzQ2xTZXEIM0QIMjZpc1ZpZXdNaW5JTUNEZmFsc2UIMjZsaXN0TW9kZSUzRCUyNg%3D>, (2020.1.6. 검색)

② 영일만항 크루즈 산업 적극 육성 계획¹¹⁾

- ☞ '19년 12월 14일에 진행된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크루즈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국제크루즈를 4박 5일간(14일~18일) 시범운항 하였으며 1,255명의 관광객이 참가하여 모집인원 100%를 달성함
- ☞ 시범운항을 진행한 이탈리아 크루즈선사인 코스타크루즈는 영일만항의 크루즈 운항 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 향후 포항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CIQ(세관, 출입국, 검역) 이용 및 수속절차 불편사항, 선사 내 시설 및 프로그램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 또한, 해외 크루즈 관광객 현황 및 기항지별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11) 포항시청 보도자료,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mV3cyUyRjU4OSUyRjQyNzg5MCUyRmFydGNSVmldy5kbyUzRnBhZ2UIM0QxJT12c3JjaENvbHVtbiUzRHNqQ24IMjZzcmNoV3JkJTNEJUVDJTk4JTgxJUVDJTIEJUDDJUVCE3JThDJUVEJTR1JUFET12YmJzQ2xTZXEIM0QIMjZpc1ZpZXdlNaW5UTNEZmFsc2UIMjZsaXN0TW9kZS5zRCUyNg%3D%3D>, (2020.1.6. 검색)

8) 동해·목호항

① 동해시 '20년 해양수산분야 94억 투자 계획 발표¹²⁾

- ☞ 동해시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6개 지표를 설정하고 '20년 총 94억 투자 예정
- 동해시는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위해 6개 단위사업 지표를 설정하고 '20년 총 58개의 해양수산정책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활성화'를 비롯한 '청정 해양환경 개선 및 어항환경 기반시설 구축',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닷속 조성', '어업생산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 장비 지원',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 및 어촌 경제안정화', '수산물유통·가공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목호항 활성화를 위해 '청정 해양환경 개선 및 어항환경 기반시설 구축' 중 13개의 세부 사업(예산 23억 원),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 중 6개 세부 사업(예산 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12) 동해시청 보도자료, http://www.dh.go.kr/pages/sub.htm?mode=view&mv_data=aWR4PTk2NTUmbmF2X2N2ZGU9ZG9GxNDCwNzU3NzgwJnNOYXJlOUJGFnZT0xNSZsaXN0Tm89OTM2NCZ0YWJsZTJjc19hYnNfZGF0YV9yZXBvcnQmY29kZTlyZXBvcnQ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lRlG0mb3JkZSJfbGZldD0mbGZldF9zY2F5ZT0mdmld19sZXZlbD0mdmld19yYXRlPSZ2aWV3X2NhZGUyPSZwYXJ0PQ==, (2020.1.12. 검색)

목호항 수산물유통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관형 비가림막 설치 조감도



자료 : 동해시청 보도자료(2020.1.12)

9) 군산항

① 2020년 군산항 항만 및 어항개발 예산 전년 대비 12.3% 증액된 994억 원¹³⁾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및 어항시설 확대, 항만운영여건 개선 등에 99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밝힘

- '19년 885억 원 대비 12.3% 증가한 예산은 새만금 신항 개발과 군산항과 장항항의 운영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예정
- '20년 예산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458억 원 투입되며 군산항·장항항 개발(252억 원)과 항만시설유지보수(178억 원)사업 추진에 활용될 계획임
- 또한 위도항 어항조성과 격포항 어항 조성에 각각 40억 원, 44억 원이 투입되며 말도항과 여청도항 정비공사에도 1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됨

☞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 투입으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장항항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된 어항환경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http://gun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6577&boardKey=66&menuKey=456&currentPageNo=1>, (2020.1.6. 검색)

2020년 군산항 예산 및 추진 사업

구분	추진사업	예산
1	새만금 잡화부두 2선석 설계비	28억 원
2	항로준설설계비	40억 원
3	관리부두 축조공사비	50억 원
4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원
5	군산항·장항항 저수심구간 준설 설계비	20억 원
6	국제 여객 터미널 증축 설계비	4억 원
7	임항 창고 신축 설계비	8억 원
8	7부두 임항 창고 신축	198억 원(2020년~2021년)
9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121억 원(2020년~2021년)
10	군장항 입구 준설	458억 원 (2020년~2024년)

자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19.12.11.),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0) 목포항

① '20년 '목포항 건설사업' 예산, 316억 원 확보¹⁴⁾

☞ 목포권역 내 무역항, 연안항, 어항을 관리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년 예산으로 1,668억 원을 확보함

- '항목별로 목포항 건설사업비 316억 원, 목포항 유지보수예산 85억 원, 흑산도항 개발사업 50억 원, 국가어항 건설사업 395억 원, 가거도항 복구사업비 420억 원, 항로표지사업 60억 원,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건조비 15억 원 등임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http://mokpo.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9402&boardKey=7&menuKey=456&currentPageNo=1>, (2020.1.16. 검색)

☀ 목포항과 관련된 예산은 '목포항 건설사업' 316억 원이며 목포신항과 북항 배후단지 조성, 부두 건설, 물양장 정비 및 도로설계와 관련된 예산임

- '항목별로 신항 배후단지 조성비 89억 원, 예부선부두 건설비 74억 원, 자동차부두 건설비 10억 원, 신항 진입도로 설계비 15억 원, 동명동 물양장 정비 5억 원, 북항 어선물양장 정비 25억 원, 북항 진입도로 설계비 15억 원 등이 반영됨
- '추가적으로, 국가관리 연안항인 흑산도항에 올해 50억 원, '23년까지 총 454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선과 어업지도선 부두 등을 건설할 예정임

11) 마산항

① '19년 창원해역 해양오염, 전년 대비 크게 감소¹⁵⁾

☀ 경남 창원해양경찰이 '19년 창원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유출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방제 조치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오염사고는 '18년 13건 1만 110리터였으나, '19년 18건 3,401리터로 사고 건수는 증가했으나 유출량은 66% 감소함
- '해경은 오일펜스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로 방제 조치율이 약 4.3%p 상승('18년 84.6%, '19년 88.9%)했다고 밝힘
- '오염물질은 윤활유 등 기타유 7건(38.9%), 경유 5건(27.8%), 중유 4건(22.2%), 유성혼합물·폐기물 2건(11.1%) 순서이며, 오염원별로는 선박 12건(66.7%), 육상 5건(27.8%), 기타 1건(5.6%)으로 대부분 선박 기름유출사고임

15) 창원해양경찰서 보도자료, <http://www.kcg.go.kr/changwoncgs/na/ntt/selectNttInfo.do?nttSn=17942>, (2020.01.10. 검색)



2. 품목별 동향

1) 컨테이너¹⁶⁾

① '19년 11월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금액지수는 각각 전년 대비 2.7%, 12.4% 하락함

기계장비 등의 수출 증가에도 전자기기 및 전기장비 등의 수출물량 감소로 11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대비 하락함

- 수출금액지수 또한 기계장비가 증가하였지만 화학제품과 전자 및 광학기 등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12.4% 하락함

'19년 11월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 전자기기 부문이 증가하였지만 광산품과 화학제품의 수입감소로 전년 대비 4.2% 하락함

- 수입금액지수는 농림수산물, 광산품, 공산품 모든 부문에서 감소, 특히 공산품 중 화학제품(-30.1%)과 광산품(-22.2%) 수입금액이 감소가 두드러짐

'19년 11월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10.1%)과 수입가격(-9.9%) 모두 하락하여 전년 대비 0.2%p 하락함

-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2.7%) 및 순상품교역조건지수(-0.2%) 모두 하락하여 전년 대비 2.8%p 하락함

16)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d=10055549&menuNo=200690&pageIndex=5>, (2020.1.6. 검색)

11월 교역조건지수 등락률
(달러 기준)

구 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년 8월	19년 9월	19년 10월	19년 11월p
순상품교역조건지수	-4.6	-4.0	-3.3	-0.2
소득교역조건지수	-10.2	-6.0	-7.8	-2.8

자료 : 한국은행 '19년 12월 27일 보도자료

2) 양곡

① 2020년 1월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¹⁷⁾

미국 농부부(USDA)는 '20년 1월 2019/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과 공급량, 소비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9/20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6억 6,2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곡물 공급량 또한 전년 대비 0.6% 증가한 34억 6,2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USDA는 19/20년도 곡물 소비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생산량을 약 7천만 톤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곡물교역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4억 3천만 톤으로 전망하였음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http://www.krei.re.kr:18181/board/month_market/view/wr_id/5046, (2020.1.16. 검색)

-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 전망된 밀의 교역량은 1억 8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19/20년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옥수수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14억 3천만 톤으로 전망됨

3) 시멘트

① 시멘트 업계, 지역상생 지원금 상향 예정¹⁸⁾

- ✎ 최근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신하여 지역상생 지원금을 '19년 기준 연간 100억 원 수준에서 '20년에는 약 2.5배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19년 12월 16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기존 톤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같은 조치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됨
- 즉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로 인한 500억 원 이상의 부담을 피한 업계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직접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임

18)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7mod=news&act=articleView&idno=1001605>, (2020.1.5. 검색)

4) 모래

① 서해EEZ 모래채취 허가 지연, 업체 경영난 가중¹⁹⁾

- ✎ 서해EEZ 모래채취 허가 지연으로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8년 12월 이후 서해EEZ 모래채취허가가 약 1년여 간 지연되며 발생한 업체들의 피해액은 약 2,160억 원으로 추정됨
- 서해EEZ 모래채취를 추진한 총 35개 업체 중 가장 손실이 큰 곳은 성진해운(주)으로 약 462억 원이며, 뒤이어 (주)규원 347억 원, (주)금석해운 167억 원, (주)대흥개발 140억 원 순으로 확인됨
- 특히 피해액이 4억 8천만 원인 우리해운(주), 45억 원인 태일해운(주), 45억 원인 자원개발(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적으나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임
- 인천 지역 골재업계는 서해EEZ 골재사업이 중단된 이후 모래채취에 사활을 건 대다수 향토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힘
- 한편 서해EEZ 모래채취 허가를 위해 결성된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은 '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바다골재채취 허가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 전달 및 사업재개 협조 등을 요청한 바 있음

19) 건설경제신문,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no=201912051509239510832#cb, (2020.1.10. 검색)

5) 석탄

① 산업부,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²⁰⁾²¹⁾

☞ 정부의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상한제동이 시행됨

-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방안'에 따라 '19년 12월 1~3주 석탄발전소 8~15기가 가동 중단되고 20~47기가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고강도 저감대책에 시행으로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82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톤 감소했으며(36%↓), 전력 예비율은 12.9 ~ 18.8% (1,043~1,447만 kW)로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됨

☞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석탄발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년 3월 중 불철 전력수급관리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리 의지를 표명한 상태임

20)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press/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386&bbs_cd_n=81&currentPage=27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2020.1.12. 검색)

21)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press/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514&bbs_cd_n=81&currentPage=14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2020.1.12. 검색)

6) 철광석

① '19년 11월 중국 철광석 수입량 전년 대비 5.1% 증가²²⁾

☞ 중국의 '19년 11월 철광석 수입량은 9,0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입 가격 역시 전년 대비 5.1% 증가한 90.65달러를 기록함

☞ 수입량 증가 이유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 증가 및 철광석 공급 감소에 기인하며 평균 수입 가격 증가는 지난 1월 광미담 붕괴사고 이후 급등한 철광석 가격이 아직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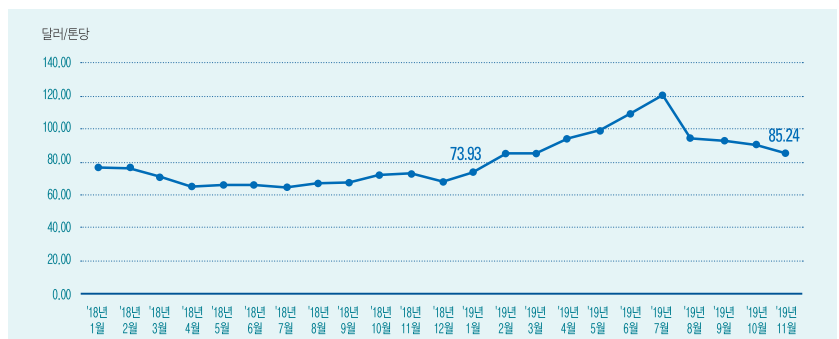
- 철광석 가격은 지난 1월 사고 이후 공급 불안정으로 7월까지 급등하였으며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높은 값을 기록 중임

☞ 한편, 중국의 11월 철광석 누적 수입량은 9억 7,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수입량이 증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 '19년 총 수입량은 전년 대비 500만 톤 감소한 10억 5,900만 톤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수입량은 4억 6,87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함

22)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 (2020.1.16. 검색)

철광석 월별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19.12.30. 검색 기준)
주 : 62% Fe, 중국 청다오항 도착 가격 기준

7) 기타광석

① '19년 11월 주요광물의 가격동향²³⁾

📌 '동(copper)'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공급차질 이슈로 인한 가격 상승

- 동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및 세계 경기하락,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음
- 전기동은 페루 광산노조 파업, 칠레 반정부 시위격화로 인한 광산생산차질 등 공급차질 이슈로 인해 '19년 11월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2.0% 상승한 톤당 5,860달러를 기록함
- 콩고민주공화국과 메이저 Glencore사간 로열티 문제로 인한 갈등관계 심화 등으로 광산채굴이 중단되면 동의 공급부족 이슈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최근 미·중 1차 무역협상이 타결되며 전기동 수요 개선, 중국 제조업 및 산업생산 증가율 개선 등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연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투자위축 및 아연 공급증가로 인해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함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및 정련아연 공급증가로 인해 재고량이 전월 대비 7.5% 증가하며 아연의 '19년 11월 평균 가격은 톤당 2,433달러로 전월 대비 0.5% 하락함
- '19년 정련아연 공급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73만 톤으로 예상되고, 소비량은 1,40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른 정련아연 공급부족은 작년 93만 6천 톤에서 일부 상쇄될 전망이지만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음

📌 니켈은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공급부족이 해소되면서 전월 대비 급락함

- 니켈시장은 인도네시아 니켈원광 금수조치 발표, 파푸아뉴기니의 Ramu 플랜트 오염물 배출 사건으로 인해 광산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수출재개 및 금수조치의 잠정적 해제로 인해 11월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11.2% 급락한 톤당 15,200달러임
- 다만 최근 미·중 무역협상 1차 타결소식과 '20년 인니의 원광수출이 막히면서 수급차질이 예상되며, Vale사의 파푸아뉴기니 VNC사업부가 운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3) 자원시장 월간동향, 19-12호, 한국광물자원공사, 2019.12

8) 화학공업생산품

① 전남도, 롯데케미칼·GS에너지와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²⁴⁾

☞ '20년 상반기에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각각 51%, 49% 지분으로 합작사를 설립 후 여수국가산단내 부지에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건설 예정

- 공장 설립시 향후 기초유분 등 약 40만 톤 이상의 화학공업품 생산 및 연 1조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7,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예상됨

☞ 전남도는 이번 합작투자 체결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함

- 최근 LG화학, GS칼텍스와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위한 5조원 이상의 투자협약을 체결함

24) 여수시청 보도자료, http://www.yeosu.go.kr/WWW_BODO_PDS/boardView.do?seq=115445&menuId=yeosu0501030000&searchCate=&pageInd ex=23, (2020.1.6 검색)

9) 목재

① 산림청, '19년 12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18년 기준)를 발표함²⁵⁾

☞ '18년 국내산 원목 자급률은 전년 대비 3.2%p 증가한 58.8% 기록

- 해당 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와 공급,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임

☞ '18년 국내산 원목 이용률은 증가했으나, '16년부터 감소하던 원목 구입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함

- 원목 구입량은 '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16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8년에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752만 3천m³를 기록함
-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합판·보드업(11.4%↓), 일반제재업(10.4%↓), 목재칩 제조업(11.8%↓) 분야 원목 구입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61.1%↑), 톱밥제조업(23.2%↑), 장작제조업(28.9%↑) 분야의 원목 구입량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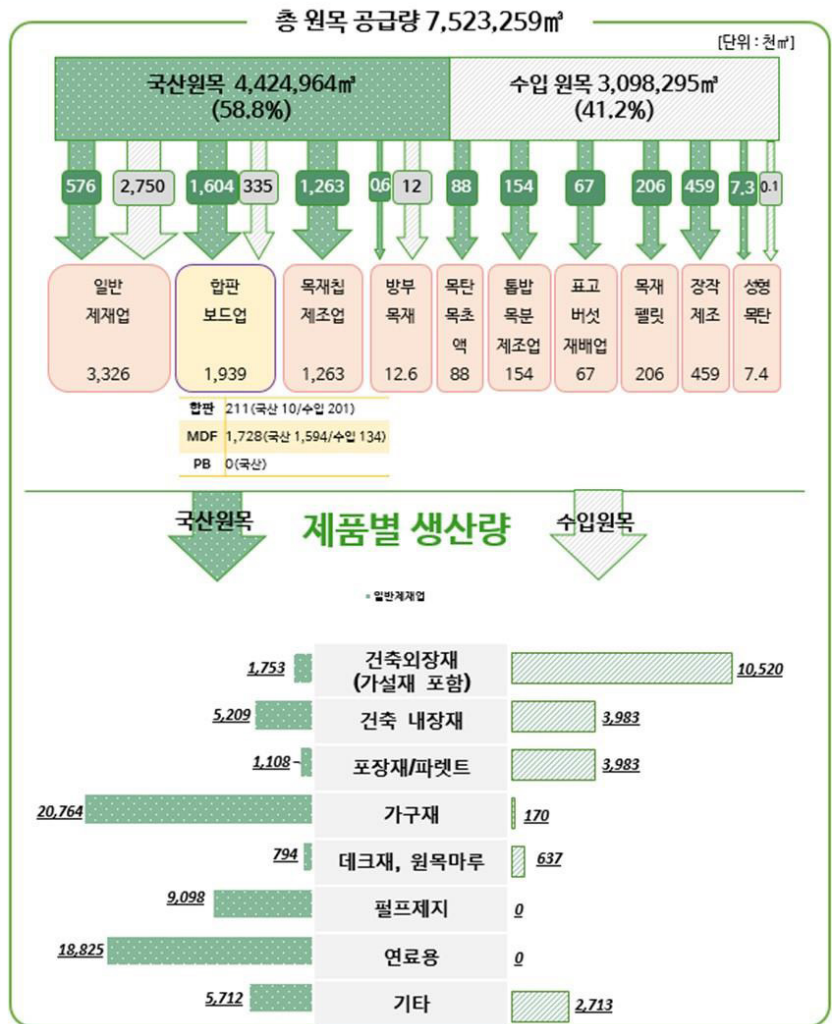
25) 산림청 보도자료, http://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Id=3140350, (2020.1.16)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요약

2018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조사 결과 요약

2018년 원목 이용 산업, 한 눈에 살펴보기!



자료 : 산림청 보도자료(2019.12.27)

10) 고철

① 국내 고철 공급량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증가²⁶⁾

☞ '19년 10월 국내 고철 공급량 분석 결과 자가 발생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내 구입 물동량 및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총 공급량은 4개월 연속 감소함

26) 스크랩워치,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04>, (2020.1.6 검색)

- 고철 공급은 크게 국내 구입 물동량(시중물동량), 국외 수입 물동량, 자가 발생량으로 나누어짐
- 국내 구입 물동량은 연휴 전 시작된 가격 하락세로 인해 10월 기준 141만 4천 톤으로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10월이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탓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8.8% 감소함
-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한 49만 3천 톤, 자가 발생량은 같은 기간 0.7% 소폭 증가한 52만 5천 톤을 기록함
- 한편, 이러한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업체의 고철 재고량은 생산부진으로 인해 3개월째 증가하여 '18년 11월 이후 최대치인 146만 3천 톤을 기록함

1) 철재

① 세계 조강생산량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 기록

- '19년 11월 세계 조강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1억 4,779만 1천 톤 기록
- 반면 아시아는 전년 동월 대비 1.2%(+128만 6천 톤) 증가하였으며 유럽 및 남미 지역이 같은 기간 각각 11.1%(-148만 7천 톤), 10.2%(-38만 3천 톤) 감소함
-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만이 전년 대비 3.4%(+266만 6천 톤)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감소세를 기록함

'19년 11월 세계 조강생산량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11월	누적	11월	누적	당월	누적
EU(18)	13,376	144,824	11,889	138,556	-11.1	-4.3
Other Europe(5)	3,474	37,638	3,171	34,150	-8.7	-9.3
C.I.S(6)	7,896	92,378	7,580	91,955	-4.0	-0.5
North America(6)	10,053	110,753	9,693	110,115	-3.6	-0.6
South America(6)	3,747	41,526	3,363	38,062	-10.2	-8.3
Africa(3)	1,250	13,383	951	12,487	-23.9	-6.7
Middle East(4)	3,096	32,552	2,992	33,733	-3.4	3.6
Asia(8)	105,459	1,154,535	106,745	1,214,023	1.2	5.2
- China	77,621	848,139	80,287	908,617	3.4	7.1
- India	9,192	99,916	8,934	101,953	-2.8	2.0
- Japan	8,659	95,856	7,743	91,527	-10.6	-4.5
- South Korea	5,923	66,301	5,895	66,032	-0.5	-0.4
- Taiwan ,China	1,963	21,205	1,670	20,325	-14.9	-4.1
Others	941	10,072	900	9,895	-4.3	-1.8
World	149,766	1,643,492	147,791	1,688,630	-1.3	2.7

자료 : 세계 철강 협회 월별조강생산량(www.worldsteel.org, 2019.12)

주 : 매월 업데이트됨에 따라 전월 수치가 재확정됨

② 탄소배출권 톤 당 4만원 돌파, 철강업계 어려움 가중^{27) 28)}

☀ 지난 12월 12일, 탄소배출권 가격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톤 당 4만 원대를 돌파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15년에 도입됨
- 탄소배출권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74% 증가함

☀ 철강업계는 업종 특성 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야하는데 가격이 급상승하여 추가 비용 문제가 대두됨

- 쇠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로에 투입된 철광석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녹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됨

☀ 특히, '21년부터는 감축 목표가 확대된 '제3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배출권 거래에 대한 어려움은 가중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년 1월 중으로 '2021~2025년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임
- 3차 계획에서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임

☀ 한편, 환경부 관계자들은 최근 가격 급등의 원인이 거래 없이 호가 등으로만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임

27) 철강금속신문,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2032019.12.30>, 검색)

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93&call_from=naver_news\(2019.12.30](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93&call_from=naver_news(2019.12.30) 검색)

12) 자동차

① '20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확대 예정²⁹⁾

☀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20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부문, 환경부문, 안전부문, 관세부문으로 구분하여 발표

- '20년 부터 수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면제가 연장되며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 적용됨
- 또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무공해차 보급제도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대비한 제도 정비, 어린이 운송용 승차 좌석기준 개정 등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들이 개정 및 신설되었음
-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 되면서 향후 국내 자동차 수출여건이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29)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19.12.26),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38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0.01.15. 검색)

13) 잡화

① '19년도 기계 산업 수출금액 2년 연속 500억 달러 기록³⁰⁾

☞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19년도 일반기계 수출금액은 2년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함

- 일반기계를 제외하고 2년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한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유 일하며 일반기계는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2위 품목임
-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18년 대비 감소했지만 화학기계수출 증가로 '19년도에도 500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달성함
- 지역별 수출금액은 중국이 112.2억 달러(전년 대비 9.6% 감소)로 가장 높으며 미국(79.8억 달러, 1.2% 감소), EU(63.6억 달러, 2.9% 감소), 베트남(33.9억 달러, 2.4% 감소) 순으로 이어짐
- 부문별로는 건설기계(54.1억 달러), 냉난방공조(25.2억 달러), 공작기계(26.0억 달러)가 수출 금액중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30) 기계신문, <http://www.mtnews.net/news/view.php?id=7587&mcode=m11gy55>, (2020.1.16 검색)

14) 유류

① '20년, IMO2020 시행으로 정유업계 실적 개선 전망³¹⁾

☞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업체 Platt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서 저유황유 시장을 가장 잘 준비한 국가로 지목함

- 일본과 중국의 정유업체들의 시설이 한국보다 뒤쳐져 있어 '20년 저유황유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됨
- 현재 해운업계에서는 IMO 규제에 대비해 선사들이 설비투자가 필요한 LNG 전환이나 스크러버 설치보다는 저유황유 도입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국내 정유 4사는 저유황유 생산설비 투자를 늘려왔으며 글로벌 리서치 기관은 향후 저유황유 시장이 200만 B/D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31)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ko/material/ma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1702&page=1&mode=ead&b_type=, (2020.1.6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안승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2. 14.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
